

독일의 기독교 교육 철학 연구: A. H. 프랑케를 중심으로

최용준(한동대)

논문초록

본 논문은 독일의 교육 제도 및 사회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의 기독교 교육철학에 관한 고찰이다. 프랑케는 독일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개신교 신학자 중 한 사람이면서 기독교 교육자로서 18세기에 독일의 할레(Halle) 지역에서 프랑케 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교육 철학은 나중에 독일의 교육 제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일 및 세계 선교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경건주의적 사상 및 교육 철학이 그가 설립한 프랑케 재단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후 결론적으로 그의 기독교 교육 철학이 한국 기독교교육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겠다.

주제어: 프랑케, 기독교 교육 철학, 경건주의, 프랑케 재단, 사회 개혁

I. 서론

독일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 이후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 설립되었고 지금도 이 학교들은 분명한 기독교 교육철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키우고 있다. 이 독일의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 프랑케가 어떤 교육철학을 유산으로 남겼는지를 고찰하여 한국 상황에서 타산지석으로 참고해야 할 내용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프랑케는 17세기말과 18세기 초에 일어났던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자이며 이 운동을 종합적으로 완성시킨 신앙의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다(Kotsch, 2010). 그가 활동하던 당시 독일은 30년간 신구교간의 종교전쟁과 흑사병 그리고 경제적 불황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나아가 그의 신학적 입장이나 인격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독일 개신교회의 진정한 갱신과 부흥을 주도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그가 살던 도시인 독일 동북부 지역의 할레(Halle)를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독일이 최초로 통일되는데 초석을 놓았고 그의 교육철학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선교를 통해 세상을 바꾼 지도자였다.

지금까지 그는 주로 신학자들에 의해 경건주의자라는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보면 누구나 곧 그가 단순한 신학자나 경건주의자가 아니라 그의 경건주의적 이상을 무엇보다도 ‘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교육 철학자이자 사회개혁가였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그의 기독교 교육 철학을 발전시켜 나름대로 교육이론을 정립하였고 실제로 그가 활동하던 할레에 대규모의 학교 공동체인 프랑케 재단(Franckesche Stiftungen)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인재 양성 및 사회개혁에 헌신하였다. 특히 그는 고아들과 가난한 어린이들 그리고 소녀들과 같은 평범한 자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교육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독일 교육 제도의 기반이 되는 학교 시스템을 확립하였고 그는 이 재단을 통해 할레뿐만 아니라 프로이센(Preussen) 전역 및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덴마크 및 영국과 협력하여 세계 선교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가 운영했던 할레 학교는 18세기 이후 독일 학교교육의 모범이 되었는데 가령 그의 학교 운영안은 당시 독일의 학교설립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아가 그는 그의 목회 활동 자체도 넓은 의미의 ‘교육’으로 이해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목회를 이끌어 갔다. 그리고 그는 첫 목회를 시작하기 전인 라이프치히(Leipzig) 시절부터 할레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였다. 따라서 프랑케의 삶과 활동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준 교육개혁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독일에서 일찍부터 높이 평가되어 그의 사후에 그의 설교집 및 신학적 저술과 함께 그의 교육적 저술들을 한데 묶은 <교육학 전서(Pädagogische Schriften)>가 출판되었다(Kramer, 1876). 그리고 멘크(Peter Menk)가 그의 교육학 전반에 관한 연구 평가서를 낸 후(Menk, 2001), 계속해서 경건주의적 교육학자로서의 그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몇몇 학자들도 프랑케의 교육사상을 연구하였으나(Yang, 1995; 양금희, 2001; 이은재, 2003; 양승환 2015) 주로 신학의 영역에서 경건주의적 관점으로 다루어져 왔다(주도홍, 2003; 조용선, 2008; 송순재, 2009; 윤화석, 2009; 이성덕, 2009). 따라서 본 논문은 경건주의적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그의 사상 및 활동에 초점을 맞추되 교육철학에서 그가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 우선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가 세운 프랑케 재단, 그의 경건주의 그리고 그의 교육철학에 대해 고찰한 후 그가 남긴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후 결론적으로 그의 기독교 교육 철학이 한국 기독교 교육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겠다.

II. A. H. 프랑케의 기독교 교육 철학

1. 프랑케의 생애

1) 프랑케의 탄생 및 수학

프랑케는 1663년 3월 12일 독일의 북부 지역인 뤼벡(Lübeck)에 살던 한 법률가 가정에서 태어났다. 3세가 된 그는 1666년에 부모를 따라 고타(Gotha)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자랐는데 11세 때부터는 경건한 그의 누이 안나(Anna)의 영향을 받았는데 안나는 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었다(Kotsch, 2010: 17). 자신의 소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프랑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깨달았다(So habe ich gelernt: Die Furcht des Herrn ist der Weisheit Anfang.)” (Hartmann, 1897: 12).

1679년부터 그는 에어푸르트(Erfurt)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그 후에 킬(Kiel)과 함부르크(Hamburg)에서도 수학한 후 다시 고타로 돌아왔다. 그가 킬 대학에서 공부할 때 당시에 저명한 신학자였던 코르트홀트(Christian Kortholt) 교수택에 머물면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때 처음 이 교수로부터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였던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를 소개받게 되었다. 1684년에는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에서 공부한 후 이듬해에는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서도 잠시 공부하다가 다시 라이프치히에 돌아와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곳의 파울리너 교회(Paulinerkirche)에서 처음 설교도 하였다(de.wikipedia.org/wiki/August_Hermann_Francke). 그가 라이프치히에 있는 동안 안톤(Paul Anton)등 여덟 명의 친구들과 함께 1686년에 성서 동지 연구회(Collegium Philobiblicum)를 조직하여 매 주일 오후에 모여 두 시간씩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한 장씩을 공부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경연구에 힘썼는데 1687년에 슈페너가 라이프치히에 와서 이 모임에 여러 조언을 해 주면서 프랑케는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Kotsch, 2010: 23).

2) 프랑케의 영적 위기와 회심

하지만 라이프치히에 약 3년 반 머무는 동안 프랑케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체험하게 되었다. 학문과 경건 간에 갈등을 느꼈으며, 자신의 명예를 위한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나는 약 7년간 신학을 연구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Ich habe ungefaehr sieben Jahre die Theologie studiert, nicht aber Gott kennengelernt)”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Francke, 1692).

그러던 중 1687년에 프랑케는 당시 약관 24세였지만 뤼네부르크(Lüneburg) 지역의 노회장이던 산트하겐(Caspar H. Sandhagen)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성경을 강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그곳 교회의 부탁을 받아 요한복음 20장 31절¹⁾에 대하여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깊이 돌아보며 성찰하면 할수록 자신의 믿음이 그동안 너무나 학문 지향적이었으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진정 진리를 소유한 신앙인인지 자신이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더 큰 절망에 빠져들었고, 그에게 주어진 설교를 행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어릴 적부터 경건을 쌓아 왔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과 성

1)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표준새번역)

경의 진리,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성까지도 의심하며 방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케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자신의 영혼을 받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Hartmann, 1897: 34). 며칠 동안 이러한 영적인 씨름을 하던 중 우연히 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²⁾을 읽었는데 그곳에 있던 샤프(Heinrich Wilhelm Scharff) 목사를 만나 이 본문에 관해 대화하던 중 자신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설교하기 며칠 전, 그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재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큰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의 모든 의심과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고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그 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Francke, 1969: 28). 그가 신뢰하던 이성(Vernunft)은 이제 신앙(Glauben)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는 참된 확신에 가득 차 모든 생각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분의 계시가 신실함을 기초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목표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3) 프랑케의 사역: 시련을 통한 성숙

거듭남을 체험한 후 프랑케는 잠시 함부르크(Hamburg)에 가서 동료 사역자들과 교제하다가 1689년에 두 달간 드레스덴(Dresden)에 가서 슈페너를 만난 후 라이프치히로 돌아왔다. 그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및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해 믿음은 하나의 겨자씨와 같으며 학문적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Hartmann, 1897: 42).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모여들어 강의실이 비좁아지자 제일 큰 강당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300여 명이 모였다. 그의 강의를 신학생들에게 영적 갱신을 불러일으키자 다른 동료교수들은 프랑케를 시기하며 견제하였고 그가 대학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마을 사람들을 동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분과주의자 내지 이단 지도자로 매도하여 그는 결국 1690년에 해직 당했다. 그러자 그는 라이프치히를 떠나 에어푸어트에 가서 설교 봉사도 하고 모친이 있던 고타에서 설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타인 뤼베크에 가서도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은 성경 묵상 및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에어푸어트의 아우구스티너교회(Augustinerkirche) 목회자로 청빙 받자 프랑케는 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수락하여 경건주의적 정신으로 열심히 목회했으나 다시금 영성에 대한 의견차로 반대자들에 의해 해임당하여 15개월 만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가 해임되던 해에 드레스덴에서 왕실 설교자로 봉사하던 슈페너도 해임되었다(en.wikipedia.org/wiki/August_Hermann_Francke). 그 후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프랑케는 베를린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모친을 만나기 위해 고타로 내려갔다.

베를린의 니콜라이교회(Nikolaikirche)에서 일하던 슈페너를 만나기 위해 다시 베를린으로 간 프랑케는 거기서 할레 근교의 글라우하(Glauchau)에 있던 성 게오르크 교회(St. Georgen Kirche) 교구목사로 일하는 동시에 할레 대학의 헬라어와 근동어학 교수로 일하도록 초빙 받게 되었다. 1693년 2월 4일 그의 첫 취임설교는 고린도전도 2장 1-2절³⁾을 본문으로 했다(Kotsch, 2010: 50). 당시 할레 대학은 갓 시작한 작은 학교에 불과했으나 그 후 유럽에서 매우 유명한 대학이 되었으며 경건주의의 중심지가 되었다. 프랑케는 이 할레 대학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6년간 봉사하게 되었다. 동시에 1692년부터 1715년까지 글라우하의 목회자로 봉사하면서 그는 칼 힐데브란트 폰 칸슈타인(Carl Hildebrand von Canstein), 군인들 그리고 프로이센의 귀

2)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새번역)

3)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표준새번역)

죽들 등 다양한 인사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명성을 쌓은 후, 그는 1715년부터 1727년까지는 할레의 성 울리히 교회(St. Ulrich Kirche) 목회자로 봉사하였는데 그의 유창한 설교와 탁월한 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de.wikipedia.org/wiki/August_Hermann_Francke).

결국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프랑케와 대부분 경건주의 지도자들인 할레 대학 교수들은 경건주의와 루터교의 전통적 신학을 비교하면서 전통적 신학을 서서히 수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의해서 경건주의 운동은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어 할레 대학은 보다 덜 논쟁적인 신학, 보다 덜 냉담하고 보다 덜 세속에 물든 교회, 성경에 정통하고 사랑의 실천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강조했다. 프랑케는 경건주의란 “엄격한 규율, 노동에 대한 태도, 근검절약 및 진지함이 표식이 되어야 하며, 유머와 놀이, 시간 및 재물의 남용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자의식 및 자긍심은 함양시켰다”고 주장했다(Schmidt, 1966: 38). 나아가 코츠(Michael Kotsch)는 경건주의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첫째, 성령을 통해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경건을 내면화함. 둘째, 중생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생활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음. 셋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을 축복된 삶의 기원과 규범으로 봄. 넷째,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다섯째, 거듭난 사람들 모두 제사장임. 여섯째, 인간의 성별, 연령 및 사회적 역할에 따른 삶의 차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임. 일곱째, ‘내적인 금욕’을 통해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함. 여덟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Kotsch, 2011: 13-14).

4) 클라우하와 할레에서의 사역: 프랑케 재단

당시 그가 사역하던 당시 독일은 30년 종교전쟁(1618-1648)으로 국토 대부분이 황폐화되고 인구가 급감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페스트가 휩쓸면서 클라우하의 인구가 격감하며 1682-83년에만 800명이 사망하여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Kotsch, 2010: 50). 그 후 다시 인구가 점증하였으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하인들, 육체노동자들이었다. 게다가 1681년과 84년에는 대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클라우하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1717년에는 거의 파산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었고 범죄가 증가했으며 동네마다 술집이 너무 많아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음주 문제가 심각했고 주일성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일요일에도 일해야만 했다. 교회의 재정 상황도 열악하였고 일부 장로들은 헌금을 횡령하여 프랑케가 이를 금하기도 하였다(Kotsch, 2010: 50-51).

하지만 프랑케는 30세에 이곳에 부임한 후 이러한 영적, 도덕적 타락 상황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도둑질이나 다른 악한 행동을 통해 수입을 챙기려는 어른들을 변화시켰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 온갖 나쁜 짓만 배우며 자라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어엠포어트에서 했던 것처럼 설교에 관해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성경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 그는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금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주로 교육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당시 그가 택한 주제 성구는 창세기 18장 19절이었으며⁴⁾ 부모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Kotsch, 2010: 53).

나아가 가난하고 굶주린 교인들이 겪는 고통에 충격을 받아 그는 매우 목요일마다 도움이 필요하여 목사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생필품과 식량을 나누어주면서 영적 상담도 병행하였다. 나아가 기부금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주 중 예배와 기도 모임 그리고 아침과 저녁 기도 모임에도 교우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그러면서 1699년에는 소책자인 가정교회

4)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표준새번역)

예배지침서도 발간하였다(Kotsch, 2010: 55).⁵⁾

할레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프랑케는 라이프치히에서 하던 것처럼 성서 동지 연구회(Collegium Philobiblicum)를 시작하였다. 그가 인도하던 기도회 모임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200여 명이나 참여하자 그곳의 다른 목회자들이 다시 그를 경계, 비판하면서 할레를 떠나라고 위협하였으나 그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였다.

1695년 프랑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기 위해 자신의 방에 헌금함을 준비하였고 거기에 요한일서 3장 17절⁶⁾을 적어 놓았다. 그런데 약 3개월 후 한 귀부인이 4탈러(Taler) 16그로센(Groschen)이라는 큰 금액을 헌금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알고 이 기금으로 그는 자신의 목사관에서 빈민 고아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Kotsch, 2010: 63). 그는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 주고, 할레 대학생들에게 하루 2시간씩 교사로 봉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 2개를 빌려서 한 방에는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아이들, 또 다른 방에는 수업료를 낼만한 아이들을 수용하였다. 1695년 부활절에 이렇게 그의 공부방 앞에 있는 한 장소에서 빈민학교(Armenschule)를 시작하였는데 그 해 여름에 50명의 학생들만 있었으나 점차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여 더 큰 시설이 마련되어야 했으며 교사들 수도 늘려야 했다. 이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의 영혼 구원 및 문맹퇴치였으므로 여학생들도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했으며 가난한 아이들이나 고아들은 방과 후에 별도로 교육을 시켰다.

이 중에 실력 있는 아이들을 계속 키우기 위해 1697년에는 라틴어학교(Latina)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같은 해 할레에 프랑케 재단(Franckeschen Stiftungen)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재단은 점점 확장되어 이듬해인 1698년에는 초등학교, 고아원, 사범학교, 중학교, 실과학교, 여학교, 기숙사, 보건원, 인쇄소 등을 포함하는 종합 교육 공동체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1701년에는 할레에 본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de.wikipedia.org/wiki/Franckesche_Stiftungen). 본부 건물 정문에는 이사야 40장 31절 전반부⁷⁾가 새겨져 있으며 그 위에는 독수리 두 마리가 날고 있고 그 위에 태양이 비추는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프랑케 재단의 상징이다.

1698년 9월 18일에 그가 오직 믿음과 기도로 새로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독일 각지의 친구들과 뜻있는 자원자들이 기부금을 보내어 이 기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평신도들에게 성경 및 신학 지식을 보급했으며 또한 극빈자를 위한 병원, 과부들의 쉼터, 성경 출판사,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숙박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세웠다. 그러자 이와 같은 사업을 돕기 위해 프로이센(Preussen)의 왕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Friedrich Wilhelm I)를 포함하여 유럽 각처에서 무명의 헌금이 넘치도록 들어왔다. 이 모두가 프랑케가 강조했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다.

프랑케는 또한 소년학교의 설립을 통해 청소년 교육에도 역점을 두었는데 그는 청소년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일로 간주했다. 청소년들이야말로 미래의 주역이기에 그들에게 참된 경건 사상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나아가 할레대학과 고아원 그리고 사회 복지재단과의 연합과 결속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수단으로 확신했다. 그 후 30년간 다른 여러 학교들, 주택, 서점, 작업실, 정원 및 약국 등이 들어섰고 50년간의 건설을 통해 할레는 하나의 교육도시로 건설되어 이 재단 내에 약 2,500명이 거주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감을 받은 사회 개혁이 이루어졌다.

5) 이 소책자의 원제목은 “*Glauchische Hauskirchenordnung order christlicher Unterricht, wie ein Hausvater mit seinen Kinderen und Gesinde das Wort Gottes und das Gebet Ueben und ihnen mit gutem Exempel vorleuchten soll* (가장이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하며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글라우히의 가정교회 지침서 또는 기독교 교육서)”이다.

6)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표준새번역)

7)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표준새번역)

프랑케는 1727년 6월 8일에 64세의 나이로 할레에서 소천하여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할레의 공동묘지(Stadtgottesacker)에 묻혔다. 하지만 그 후에도 프랑케 재단은 계속 발전하였고 동독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통일 이후 다시 재건되어 현재 45개 단체가 있으며 약 4천명이 살고, 배우며, 일하고 있다(Kotsch, 198).

2. 프랑케의 기독교 교육 철학

1) 프랑케의 신학사상

프랑케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의 신학사상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이 교육철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정통 루터교의 입장을 유지하여 율법과 복음, 회개에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주제로 삼았다. 하지만 회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전제가 되며, 누구에게나 '회개를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투쟁을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産苦)로 보면서 정통 루터교의 칭의 사상과 경건주의를 특징지어 주는 중생의 사상을 연결한다(배경식, 1998: 185). 그는 또한 거듭난 자의 영적 성장을 강조하며 완전으로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및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프랑케의 신학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경건주의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으며, 실천신학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는 이론과 실제 양자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신학 수업을 경건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 훈련으로 발전시켰다. 즉 성경 강해와 목회, 설교와 교리문답 수업, 저술 활동과 조직 등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할레대학은 학자 양성에 중점을 두었던 다른 대학의 신학부를 압도하게 되었고 프로이센은 목사들과 교수들에게 할레대학에서의 연수를 의무화하였다(조용선, 2008). 그 결과 프랑케의 지도하에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던 경건주의 운동은 성경연구 및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경의 조명자인 성령의 기능과 신앙의 표현인 선행도 강조했다. 그리하여 독일 루터교회는 새로운 영적 활력을 얻게 되었으며 다시금 열심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목회자들의 영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평신도들의 교회 사역 참여가 확장되었으며, 성경연구도 힘쓰게 되었다.

브레히트(Martin Brecht)는 프랑케의 신학 사상을 다음 네 가지로 잘 정리하였다(Brecht, 1993: 462-72). 첫째 하나님의 원리(Gottes Ordnung)로서 자연 상태(Stand der Natur)의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은혜의 상태(Stand der Gnade)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루만짐, 죄에 대한 회개와 회개를 위한 노력, 복음의 위로, 회심을 통해 거듭남(Wiedergeburt)을 경험해야 한다. 둘째로 프랑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 믿음과 사랑의 연결 등은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았으나 그의 이신칭의 교리에 만족하지 않고 거듭남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인간이 거듭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즉 성화하는 과정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프랑케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거듭난 이후 하나님 자녀의 삶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단절, 죄로부터 성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로 가득 차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그는 성경 해석을 껍질(Schale)과 씨(Kern)에 비유하면서 껍질이란 성경을 역사적, 언어학적 그리고 문헌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씨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이고 문헌학적인 연구를 통해 성경의 껍질을 벗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핵심을 깨달아 성경 저자의 영감과 독자의 영감이 만나는 것이라고 보았다(Peschke, 1970: 85). 또한 성경 읽기는 진리에 대한 실천적-영적 이해와 성경의 기독교적 중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성경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연구는 신학생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신학 연구의 목적은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다. 신학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늘 새로워져야 하며 신학 연구의 도구는 기도, 명상 그리고 연단이며 따라서 신학생에게 배움과 삶은 통합된 것이고 신학수업의 중심은 경건훈련이며, 성경을 연구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학생들과 할레대학 학생들은 학업 중에 고아학교 교사로 봉사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사상은 웨슬리(John Wesley)와 초기 감리교도들, 진젠돌프(Zinzendorf) 백작과 모라비아교도들, 그리고 미국 루터교회 지도자들인 뮐렌베르크(H. M. Muhlenberg)와 쿤체(J. C. Kunze) 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2) 프랑케의 교육철학

프랑케의 교육철학은 첫째로 성경적 인간관에 기초했다(Kotsch, 2011: 207-209). 그가 활동하던 당시 독일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았다.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맹신으로 간주되어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으며 학문이 인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것으로 확신했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매우 낙관적이었다. 이에 대해 프랑케는 성경적이며 현실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도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심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프랑케는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교육을 강조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하며 좀 더 나이가 들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사춘기에는 보다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각 학생들의 차이점들도 유심히 관찰하여 가르쳐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rancke, 1885: 42). 동시에 그의 교육철학은 그의 경건주의 신학과 연관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어린 시절을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한 시기로 보았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는 소녀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그것을 확대하였다. 프랑케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둘째로 프랑케는 그의 책, *“Kurzer und einfeltiger Unterricht, wie Kinder zur wahren Gottseligkeit und christlichen Klugheit anzuführen sind(어린이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독교적 지성을 가지도록 하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면서 교사 및 학생은 함께 행동, 학습, 교육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해야 하며 (Francke, 1885: 17) 그렇지 않고 교육이 직업이나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물질주의, 명예, 욕심, 질투 등을 갖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Velten, 1988: 46). 따라서 선한 교육은 신앙심과 지혜를 겸비해야 하며, 경건, 기도, 성경공부,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은 결코 세상을 부정하는 경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학문과 신앙 그리고 실제적 삶이 통합된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학생들을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갖추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모든 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받았지만 고아들은 무상으로 교육하였다. 그는 교육자로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영재 테스트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독일어 맞춤법도 통일시켰고 학생들이 실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교육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교육방식은 가정 중심적이었는데 이는 자기 주변에서 본 불행과 타락이 종종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이 부재한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3) 프랑케의 교육방법론

프랑케에게 있어 교사의 가장 중요한 교육방법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다(Kotsch, 2011: 210). 학생들은 무엇보다 교사의 본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는 자기 학생들이 자신에게서 사악한 것을 찾아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알아차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교사가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극히 중요하며 훈련은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이 성난 감정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속된 말들이나 조롱도 학생들에게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체벌은 간혹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프랑케는 전통적 강의방식을 유지했지만 각 아동이 스스로 관찰하고 추리하고 생각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또한 성경은 모든 면에서 그의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그는 성경 진리들을 학생들의 양심과 가슴에 적용하려 노력했다.

둘째로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적 교육을 강조하였다(Kotsch, 2011: 211). 신앙 교육은 마치 모유와 같으므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수준에 맞도록 하며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루터 요리문답과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가르쳐 신앙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프랑케는 성경읽기도 강조했다(Kotsch, 2011: 211). 아이들이 읽고 쓸 수 있는 즉시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체를 읽되 구약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약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Francke, 1885: 25).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도록 해야 하며 성구들을 암송하게 함으로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Francke, 1885: 26). 즉 배우고, 이해한 후 실행하는 세 단계야말로 그의 교육방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계속해서 연습, 통찰력 그리고 배운 내용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는데 이는 현대 교육학에서도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프랑케는 기도를 강조했다(Kotsch, 2011: 212). 단지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암송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도록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도록 가르쳤다.

다섯째로 프랑케는 미덕과 악덕을 분명히 구별했다(Kotsch, 2011: 212-213). 학생들이 악덕을 멀리하고 미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교육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벌 및 경고를 할 경우에도 분노의 감정으로 하거나 위협해서도 안 됨을 강조했다. 미덕으로는 진리에 대한 사랑, 순종 및 근면을 강조했고 악덕으로는 거짓말, 고집, 나태함, 방종, 저속한 음악 등을 지적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을 진작시키기 위해 프랑케는 거짓말이 가장 큰 죄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면서 교사가 정직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절대 순종하면서고 당시 프랑케 재단의 여러 사업장에서 일정한 노동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이는 노동이 인간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었다(Oschlies, 1969: 12-48).

여섯째로 프랑케는 사랑을 통한 교육을 강조했다(Kotsch, 2011: 214). 그는 학생들이 단지 교사의 압력에 밀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의욕과 사랑'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도 학생들에게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되 그럼에도 교사의 권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Francke, 1885: 43f).

일곱째로 프랑케는 통제를 통한 도움을 강조했다(Kotsch, 2011: 215). 가령 학교에 종을 달아 제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식사 시간에 참여하는 등 교사들이 항상 학생들을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 학생들은 별도 숙소에 수용되었고 아침 5시 내지 6시부터 밤 9시까지 철저히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식당 및 다른 공간들은 사용시간이 아니면 달아 남녀 학생들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카드놀이나 연극놀이도 금지되었다.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께 보내는 편지도 사전에 검열하였고 비교적 까다로운 규율들로 학교를 통제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매일 저녁 '양심시험(*examen conscientiae*)'을 통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였다(Kotsch, 2011: 216).

여덟째로 프랑케는 경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고는 매우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성경적 근거를 말해 준 후에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tsch, 2011: 216).

마지막으로 프랑케는 필요한 징계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여덟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Kotsch, 2011: 217-218).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학생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며, 둘째 징계를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사랑이 원인이며 학생들을 위함인 것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셋째로 신체적 징계 이전에 언어로 경고한 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넷째로 징계의 동기와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다섯째로 신체적인 징계가 학생들의 건강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여섯째로 교사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한다. 일곱째로 징계 후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징계는 그 학생 개인에 맞도록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프랑케의 수업방법론

프랑케는 교육자는 단지 수단이요 중개자일 뿐으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는 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은 삼위일체적 학교 시스템을 강조했다(Beyreuther, 1963: 156). 첫째는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Armenschule)로 읽기, 쓰기, 셈하기, 음악 및 신앙 교육을 중심으로 했다. 둘째는 시민학교(Bürgerschule)로 주로 수공업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인데 앞의 교육과 더불어 실제적인 기술교육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라틴학교(Latinaschule)는 대학에 갈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라틴어, 그리스어 및 히브리어도 배운다. 이 학교 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레알슐레(Realschule)에 가서 수학, 라틴어, 불어 및 경제학을 배워 보다 실용적인 직업을 갖도록 했다.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실제로 그 직업을 가진 기술자들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얻도록 했다.

각 수업은 세 단계로 나누어졌는데 배우고-이해한 후-적용하는 방식이었다(Kotsch, 2011: 223). 앞서 언급한 과목을 외에도 기독교 과목을 매일 두 시간 더하였으며 오전과 오후에는 한 번씩 체육, 음악 또는 실습 시간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도록 했다.

5) 프랑케의 학교 운영방식

프랑케는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여섯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첫째는 언제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계획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누구든 혼자 일할 수는 없으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셋째로 학교는 삶의 모델이다. 사랑이 믿음을 보존하듯 행동은 지식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인간은 시간을 매우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매우 사소한 일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전체적인 안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chmidt, 1966: 36).

프랑케에 따르면 교육학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Otto, 1904: 2).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많은 역사적 지식을 가진 것보다 나으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수많은 학식보다 더 낫다고 강조했다(Otto, 1904: 4). 나아가 학문은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기독교적 영리함(*christliche Klugheit*)”은 오히려 학문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했다(Otto, 1904: 5).

6) 프랑케의 교육철학 평가

프랑케는 무엇보다 종교 수업을 심화시켰다. 당시 종교 수업은 기계적으로 요리문답과 성경 구절 조금 배우고 노래 몇 곡 부르는 정도여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형식적인 수업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는 아이들의 영혼에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요리문답도 그 실천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여 아이들이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사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성경 역사도 종교 수업에 도입했는데 앞선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들이 학생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Kotsch, 2011: 228).

또한 그는 총체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1708년부터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할레 신문(Hallische Zeitung)을 발행하였으며 1709년에는 소녀 고아들을 위한 3층 건물 및 소녀들을 위한 학교도 문을 열었다. 이듬해에는 영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영국 학교도 생겨났으며 1710년에는 식당 및 기숙사도 건축되어 2,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프랑케는 프로이센 귀족인 칼 힐데브란트 폰 칸슈타인(Carl Hildebrand von Canstein)의 후원으로 칸슈타인 성서공회(Cansteinsche Bibelanstalt)도 설립하여 20세기까지 수백만 권의 성경을 저렴하게 출간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세계 최초의 성서공회 사업인 동시에 프랑케 교육재단의 재정자립 기반이기도 했으며 성경을 기독교 생활의 중심에 놓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결과 프랑케 재단은 1716년에는 150명의 교사들이 2,0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명실상부한 프로이센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었고 사회개혁운동의 발상지가 되었으며 할레에서 세계를 향한 문이 되어 발틱해, 러시아, 폴란드, 보헤미아, 슬로베니아, 스칸디나비아, 영국, 네덜란드, 인도 및 북미주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어 (de.wikipedia.org/wiki/Franckesche_Stiftungen)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인도 및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독일 개신교회에도 영향을 주어 1740년경에 이르러서는 할레의 경건운동을 모방한 학교와 시설들이 쾨닉스베르크(Koenigsberg), 할버슈타트(Halberstadt), 뉘른베르크(Nuernberg), 벡(Beck), 오스트프리스랜드(Ostfriesland), 스톡홀름(Stockholm), 모스크바(Moscow), 런던(London) 등지에 설립되었다. 나아가 독일 개신교 최초의 선교, 디아코니 및 직업학교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개신교 찬송가가 작시되었고 도서관에도 처음에는 약 5만권의 책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20만 권으로 늘어났다(de.wikipedia.org/wiki/Bibliothek_der_Franckeschen_Stiftungen).

당시 자신의 대학 설립을 꿈꾸던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1691년에 할레대학을 세우고 1694년에 개교하였다. 이에 슈페너의 요청으로 프랑케가 할레대학의 교수로 초빙되고, 할레대학은 슈페너와 프랑케의 영향으로 경건주의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할레대학에 특히 프랑케의 영향력이 큰 것은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당시 여러 사회문제들에 뛰어들어 스스로 경건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자 그가 키운 학생들이 자라 계속해서 교육과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 비록 그가 많은 곳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독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들을 키워 낸 것이다. 그런 영향력 때문에 루터교회의 본산이던 비텐베르크 대학이 가지고 있던 독일 개신교 신학의 주도권이 할레대학으로 옮겨져 지금도 할레대학은 '마틴 루터 대학(Martin Luther Universität)'이라 불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은 할레대학의 분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할레대학의 주된 이념은 성경의 깊은 연구, 정통주의의 기계적 교리가 아닌 새로운 구원사상의 제시, 성공적인 목회사역 수행을 위한 실천적인 지도 그리고 경건한 행동과 신앙생활 등이었다. 특별히 신학생들은 무료로 기숙사에 있으면서 4년에서 6년까지 수업을 받았다. 그들은 원어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 주석서를 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할레 대학의 이러한 영성훈련은 교회에 충실한 지도자를 배출함은 물론 경건운동을 체계화시킨 많은 문서들을 남겼다.

동시에 프랑케는 자신이 만든 선교기관을 통해 가난과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교육과 자선의 손길을 뻗쳐 고아원, 학교, 미망인의 집, 여성의 집, 교사양성학원, 화학실험실, 약국, 서점, 인쇄소, 무료숙박소, 빈민수용소 등의 기관들을 세워 내지 선교에도 힘썼다. 이러한 활동은 기독교가 전통 종교가 아닌 생명력 있는 실천적 종교가 되게 하였다.

이처럼 프랑케가 시작한 할레의 경건주의운동 및 교육철학은 한마디로 “인간의 변화를 통한 세계의 개혁”이었다. 1696년 4명의 고아들로 시작한 고아원학교는 단순한 구호기관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교육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1696년에 정식 어린이 교육기관이 되었다. 계속해서 라틴어학교, 귀족학교, 여학교가 설립되었는데 학교의 교육목표는 “경건과 대범함”이었다. 할레학교가 유명해지자 전 유럽의 부자와 귀족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1700년경엔 당시 독일사회의 신분을 모두 망라하는 일반인 자제학교, 농민학교, 수공업자학교까지 갖게 되었다. 이 학교는 점차 기숙학교가 되었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와서 이 학교를 졸업해야 장교나 법관, 고급공무원, 의사, 목사 교수직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 1727년 프랑케가 세상을 떠날 때 이 학교의 규모는 4명의 교감, 98명의 교사, 8명의 여교사, 그리고 학생이 1,725명 이었다. 그 외에 교사양성소인 “세미나리움(Seminarium)”도 중요한 교육기관 중의 하나였다. 결국 할레에서 교육을 받은 일반, 귀족의 자녀들은 풍부한 고전어를 구사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들을 전개해 나갔다.

7) 독일 교육제도에 미친 영향

프랑케는 결국 할레 지역을 하나의 독특한 기독교 세계로 건설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프랑케와 황태자 시절부터 교제를 가졌던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Friedrich Wilhelm I)는 1711년에 프랑케를 만나 경건주의를 접한 이후 그에게 큰 감명을 받았으며 1713년에 왕으로 즉위한 직후 다시 그를 방문하여 그의 학교가 표방하는 경건주의 및 사회 복지 철학을 프로이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적은 영토로 시작했지만 후에 독일 통일의 주축이 된 프로이센왕국의 흥왕을 위해 고민하던 왕에게 국민 기초교육과 군대의 훈련방향에 대한 프랑케의 조언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프로이센의 미래 관리들을 이 학교에서 교육받게 하였으며 그들은 여기서 근면, 성실성, 책임감, 정확성, 경건 등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배웠다. 이것이 현재 독일의 기초 교육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프리드리히 1세와 그의 아들 2세는 이 학교에 대해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프로이센을 대표하는 공식 교육기관이 되었으며 프랑케의 영향을 받은 프리드리히 1세는 귀족들도 근면, 절약, 책임감을 갖도록 강조하면서 자신도 근면과 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가령 왕실 경비는 전체 국가 예산의 1%만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 결과 이 프로이센의 귀족들은 국력을 축적하여 1871년 독일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 현재 독일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직하고 근면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 뿌리는 역시 프로이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프로이센의 교육은 프랑케의 교육 철학에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교육은 진정 백년대계였음을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독일 교육제도와 사상에는 프랑케와 그의 후예들에 의해 시작된 방법과 생각에서 온 것이 많다. 실제적인 일을 가르치는 직업학교(Realschule)는 그의 제자인 요한 율리우스 헤커(J. J. Hecker)가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1747년에 시작하면서 나타났고 그 외에도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빈부에 관계없이 초등, 중등, 대학까지 실력 있는 자는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이 책임지고 키우는 모습은 그의 이상과 실천이 이룬 영향력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건주의 운동의 주요 흐름의 하나는 봉사활동이었다. 이 봉사활동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 전 생활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하며 그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한다. 그의 경건주의는 교회 신학보다 실천신학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프랑케는 독일에서 개선된 교수법을 보편화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신학교를 세웠고, 구약성경 연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희랍어와 라틴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세웠다. 그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정규학교로 발전하였다. 이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후원금을 받아 운영했다. 그는 일생을 통해 많은 교육 및 자선사업을 하며 후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같이 하여 프랑케는 할레를 기독교 교육 및 사회개혁 운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프랑케는 무한한 정력 가요, 조직의 천재로서 할레대학이야말로 경건주의의 본산일 뿐 아니라 훌륭한 교사, 목사, 외국 선교사 및 유력한 평신도들을 유럽에 공급하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는 산업발전에 기초가 되는 과학, 의학, 화학, 공학 등 전문기술교육을 중요시하고 기독교의 사회 참여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처럼 할레를 중심으로 전개된 프랑케의 교육 개혁과 이 학교 출신들의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독일 사회전반에 걸쳐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8) 세계 선교에 미친 영향

프랑케는 교육과 선교를 동시에 중시하였다. 그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연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를 많이 세워 습관화, 교리문답, 학생의 삶에 맞는 방법 등을 통해 교육하였고, 실천과 적용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제로 학업 중에 고아 학교 교사로 봉사하였고 많은 선교사들도 배출되어 프랑케의 영향력은 할레 대학, 독일 개신교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갔다.

1702년에 프랑케가 덴마크-할레 선교회(Dänisch-Hallesche Mission)를 설립한 후 경건주의의 예찬자인 덴마크의 왕이 인도에 있는 식민지에 처음 시도하는 선교활동을 위해 할레대학에서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1705년에 첫 선교사인 지겐발크(Batholomaeus Ziegenbalg)를 스리랑카에 파송했는데 이 일은 개신교 해외선교의 첫 번째 시도였다. 지겐발크는 15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의 선교 원칙은 첫째,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교육의 병행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할레에서 배운 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여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 교육에 힘썼다. 둘째, 말씀을 읽게 하려면 그들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하므로 그는 성경을 타밀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1714년에 신약성경이 나왔다. 셋째, 복음은 원주민들의 정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전파되어야 하며 넷째, 개인적인 회심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지인 교역자를 가진 현지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보았다.

1707년에 지겐발크는 첫 번째로 현지인에게 세례를 주었고 1709년에는 할레대학의 두 신학생인 그윈들러(E. Gründler)와 요르단(P. Jordan)이 와서 그의 사역을 도왔다. 그가 1715년 안식년을 맞아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자 독일 경건주의자들은 큰 선교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할레는 국내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제도에서 할레 출신의 선교사들이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했다. 또한 프랑케는 오리엔트 신학연구소(Das Collegium Orientale Theologium)를 세워 신학생들은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아랍어, 시리아어, 아람어, 터키어, 중국어 등을 배웠다. 이들은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교리 교육에도 참여했고 이들의 활동은 선교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은 덴마크 왕과 영국 왕 조지 1세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헤른후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프랑케의 러시아 선교는 루돌프(H. W. Ludolf)와 관련되는데 루돌프는 예루살렘, 카이로, 터키 등으로 여행하였고 그리스 정교회 교회와도 관계를 맺었다. 그 영향으로 그리스 학생들이 할레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오리엔트 신학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루돌프의 러시아 여행을 통한 선교에 자극받은 프랑케는 할레대학에서 수학한 샤르쉬미트(J. S. Scharshmidt)를 모스크바로 보냈다. 샤르쉬미트는 20년 이상 모스크바에서 사역했고, 할레대학의 많은 신학생들이 뒤를 이었다. 프랑케의 영향을 받은 글뤽(E. Glück)은 모스크바에 김나지움(Das Moskauer Akademische Gymnasium)을 세웠고 교사들은 할레에서 왔다. 그러면서 할레에서 공부한 러시아 학생들이 많았고 프랑케는 이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를 배웠다. 할레와 러시아의 교류는 신학생, 학교, 서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가 서방에 문호를 개방하는 데 일조했다.

1728년 칼베르크(J. H. Callberg) 교수에 의해 할레에 유대 연구소가 세워져 유대인의 해방을 주도했으며 히브리어-독어 책을 찍어 내는 독자적인 인쇄소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동부 독일과 중동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파송되었다.

할레에서 프랑케로부터 교육을 받은 뵘메(A. W. Böhme)는 영국 성공회 내의 기독교지식진흥회(SPCK,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와 연결하여 경건주의 책들을 영어로 출판하였다. SPCK는 프랑케의 교육시설을 모델로 삼아 자선학교운동(Charity School Movement)을 전개하였고 박해를 피해 미국 조지아로 떠난 잘츠부르크 이민자들을 도왔으며 할레와 연합하여 동인도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프랑케가 할레에서 파송한 지겐발크와 프뤼차우가 인도에서 보내 온 편지를 책으로 묶은 "동방에서의 복음 전파"라는 선교 보고서는 독일에서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선교 보고서는 특히 웨슬리의 어머니와 웨슬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할레 출신의 선교사들은 처음으로 복음 들고 바다를 건너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잉글랜드와 미국에 영적인 발을 일궈 부흥의 여명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의 생동성과 사랑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예배의식과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와 신학에서부터 경건에 이르기 까지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사회적, 문화적 삶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수많은 교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누룩처럼 조용히 형식화되어가는 독일교회를 생명력 있게 변화시켰다.

할레대학은 18세기 선교사업의 본부역할을 하여 18세기 어간에 약 60여 명 이상의 선교사를 배출하였으며 창설된 지 30-40년 만에 약 6,000명 이상의 경건주의 목사를 배출하여 독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경건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로 보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영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브리스톨(Bristol)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사역했던 조지 뮐러(George Müller)와 한국과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칼 귀츨라프(Karl F. A. Gützlaff) 선교사이다. 특히 귀츨라프는 한국에 최초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다. 노르웨이에서는 그린란드로 간 초대 선교사 한스 에게데(Hans Egede)와 노르웨이의 위대한 부흥가 한스 닐슨 하우게(Hans Nielson Hauge)를 배출하였다. 그 후에 다른 지방으로 간 선교사들도 많았는데 이처럼 프랑케의 지도를 받은 그들의 선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현대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프랑케의 기독교 교육철학을 고찰하였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모든 일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는 당시의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다. 가령 고아들이 많아지자 고아원을 세웠고 가난한 어린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소녀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나아가 학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기관들을 설립하여 경영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구체적인 열매로 낳았다. 셋째로 그 결과 할레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도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할레가 속해 있던 프로이센의 교육 제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이 프로이센이 독일 전체를 통일하여 프랑케의 교육 철학이 독일 전체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랑케의 교육철학은 독일이라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 교육을 실시하는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프랑케의 삶과 사상을 고찰할 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헌신한 모습은 깊은 도전을 준다. 그는 평생 가르치면서도 학문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자신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했다. 동시에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했으며 그 열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프랑케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경건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 선교에 힘썼다. 시작은 방임되고 있는 하층민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학교와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고아원 설립부터였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종교적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을 교육시켜 훌륭한 인재들로 키운 프랑케의 모범은 후대 19세기 부흥 운동가들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경적 양육을 통해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프랑케의 교육철학은 단순히 학교를 새로 짓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 발전을 도모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 목적과 수단 그리고 여러 가지 교수법 등 올바른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체계들을 수용하였으며 자신의 생각들을 실현시킬 기관들을 설립하고 그를 통해 많은 긍정적 영향들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별히 학교 의무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 인해 후대 의무 교육 법제정에 영향을 준 점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킴으로 인해 직업학교 설립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양승환, 2015: 7-37).

프랑케의 영향력이 큰 것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스스로 사회문제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경건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는데 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었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키운 이들이 자라서 계속해서 교육과 선교의 일을 이루게 만들었다. 비록 그는 많은 곳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며 인물을 키워낸 것이 마침내 큰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결국 그의 교육철학은 단지 교육뿐만 아니라 무역과 정치, 가정생활, 법, 국방, 학교 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명제처럼 프랑케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는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안을 발견하였고 '작은 모임'의 운영과 '경건의 훈련'과 '한 형제 됨'을 의식하면서 경건성과 교회의 갱신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개혁에 더욱 두드러졌던 것이 그를 중심으로 한 할레 경건주의의 가르침과 선교에 관한 열심이었다.

프랑케에게 있어서 교육과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영을 통해 하시는 사역인 것이다. 프랑케는 교육을 통해 신앙과 삶의 변화를 실현하려 하였고 이것은 국내외 선교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프랑케는 직접 선교를 국내외적으로 실천하였고 할레대학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던 것이다. 그는 교육자 또한 늘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따라서 교육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았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망과 신뢰를 잃지 않았으며 기독교 교육의 글로벌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인간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통찰력과 함께 교육에서 실습의 중요성 및 지속적인 혁신을 주장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프랑케는 진정 교육 사업 분야에서 모범적인 기업가(entrepreneu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함을 직시하였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가깝고도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학생들도 책임의식을 키워야 하며 실제적인 노동을 통해 성장해야 함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케는 학문과 신앙 그리고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함을 통찰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했고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며 세상을 변화시킨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였다. 따라서 한국 교회 및 기독교 교육계는 이 프랑케의 사상과 삶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본받아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함으로 더 나은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배경식 (1998). 『경건과 신앙』, 한국장로교출판사.
- 송순재 (2009). “프랑케의 경건주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역사적 기여와 한계”, 『신학과 세계』. 66, 2009/12, 342-392.
- 양금희 (2001). 『근대기독교교육사상』. 한국장로교출판사
- 양승환 (2015).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교육 이해와 영향”, 『한국교회사학회지』. 41, 2015/9, 7-37.
- 윤화석 (2009). “August Hermann Francke의 경건주의 교육사상: 경건과 기독교적인 삶의 현명함”, 『기독교교육정보』. 22, 2009/4, 327-348
- 이성덕 (2009). 『경건과 실천: 독일 경건주의와 A. H. 프랑케 연구』. CLC(기독교문서선교회).
- 이은재 (2003). “프랑케의 인간이해와 교육철학”, 『신학과 세계』. 48, 2003/12, 233-256.
- 조용선 (2008). “경건주의의 교육과 선교 -할레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22, 2008/8, 175-202.
- 주도홍 편저 (2003). 『독일 경건주의』. 이레서원.
- 표준새번역성경

- Ellsel, R. (2013). *August-Hermann Francke: Sein Leben und Wirken* Francke-Buchhandlung.
- Francke, H. A. (1692). *Anfang und Fortgang seiner Bekehrung*.
- _____. (1969). *Werke in Auswahl*, Erhard Pescheke Hrs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Hartmann, R. T. (1897). *August Hermann Francke. Ein Lebensbild*. Calw/Stuttgart, Verlag der Vereinsbuchhandlung.
- Hertzberg, G. F. *August Hermann Franke Und Sein Hallisches Waisenhaus* Let Me Print, 2010.
- Kotsch, M. *August Hermann Francke: Pädagoge und Reformator* Christliche Verlagsgesellschaft, 2010.
- Kramer, G. (1876). *A.H. Francke's Pädagogische Schriften*. Langensalza: Comptoir von Hermann Beyer.
- Menk, P. (2001). *Die Erziehung der Jugend zur Ehre Gottes und zum Nutzen des Nächsten: Die Pädagogik August Hermann Franckes (Hallesche Forschungen)*. Harrassowitz.
- Obst, H. *August Hermann Francke und sein Werk* Harrassowitz, 2013.
- Oschlies, W. *Die Arbeits- und Berufspädagogik August Hermann Franckes (1663-1727)*, AGP 6, Witten, 1969.
- Otto, A. (1904). *August Hermann Francke - Band II - Beurteilung und Bedeutung der Franckschen Pädagogik*, Halle a.d. Saale, Pädagogischer Verlag von H. Schroedel.
- Peschke, E. *Die Theologie August Hermann Franckes: Ein Beitrag zu Struktur und prägenden Ideen der Gedankenwelt einer der zentralen Gestalten des Pietismus* Verlag Linea, 2008.
- _____. “August Hermann Francke und die Bibel: Studien zur Entwicklung seiner Hermeneutik”, in Kurt Aland (Hg.), *Pietismus und Bibel*, AGP, Witten.
- Schmidt, M. (1966). “August Hermann Franckes Stellung in der pietistische Bewegung”, in: Dietrich Jungklaus Hrsg.: *August Hermann Francke. Wort und Tat*,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Yang, K. H. (1995). *Anthropologie und religioese Erziehung bei A .H. Francke und Fr. D. E. Schleiermacher*, Diss., Tübingen.
- Zaunstöck, H., Müller-Bahlke, T. und Veltmann. (2013). C. *Die Welt verändern. August Hermann Francke - Ein Lebenswerk um 1700 Katalog zur Jahresausstellung der Franckeschen Stiftungen vom 24. März bis 21. Juli 2013*. Hrsg. von. Halle.

https://en.wikipedia.org/wiki/August_Hermann_Francke (2016년 7월 24일 검색)

https://de.wikipedia.org/wiki/August_Hermann_Francke (2016년 7월 24일 검색)

ABSTRACT

Th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in Germany: focusing on A. H. Francke

Yong Joon (John) Choi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in Germany, especially focusing on August Hermann Francke who has transformed German society through his work. Francke is both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testant theologians of pietism in Germany and Christian educators who, by founding Francke Foundation at the 18th century in Halle, Germany, has done so many remarkable ministries. His philosophy of education made a very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present German education system, German unification and world mission. In this article, to begin with, his life is briefly summarized. After that a research is done to clarify how his pietistic mind and educational philosophy were concretely executed by Francke Foundation and what is his legacy.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his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to Korean context is be drawn.

Key Words: Franck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pietism, Francke Foundation, Social Transformation